

대화를 통한 평화와 협력의 기대: KINU 통일의식조사 2019 분석

Online Series

2019. 05. 28. | CO 19-10

이 상 신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통일연구원은 매년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 4월에 실시된 『KINU 통일의식조사』 결과는 하노이 북미회담의 결렬 이후에도 한국 국민들이 남북 협력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접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체된 대화 국면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시도해야 한다는 확실한 요구가 존재하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는 국민들의 기대를 엿볼 수 있었다. 북한이 실제로 핵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는 낮았지만, 북한에 대한 적대감은 약화되었고, 협력 파트너로서의 이미지는 강화되었다. 또한 김정은 정권과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반응도 증가했고,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할 수 없더라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응답도 늘었음이 확인되었다.

KINU 통일의식조사 2019

통일연구원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일·대북관련 여론조사인 『KINU 통일의식조사』가 지난 4월 실시되었다. 작년의 남북관계 변화와 진전이 너무 급속도로 진행되었던 탓인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회담의 결렬 이후 통일여론은 작년과 비교하여 실망감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체된 비핵화와 남북협력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여론은 오히려 작년에 비해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적대감은 약화되었고, 협력 파트너로서의 이미지는 강화되었다.

또한 김정은 정권과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이전 조사에 비해 크게 늘었으며,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할 수 없더라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응답도 증가했다.

북한이 실제로 핵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낮았지만, 작년에 비해 큰 변화는 없었다. 반면 경제 교류와 협력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작년보다도 높아졌다. 마찬가지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찬성 여론도 높아졌고, 전체 응답자의 62.6%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었다. 특히,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여론이 2018년에 비해 올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작년에 비해 5%p 정도 감소하는 등 남북협력 진전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조바심 혹은 실망감이 반영된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2019년의 KINU 통일외식조사 결과는 북한과의 대화와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의지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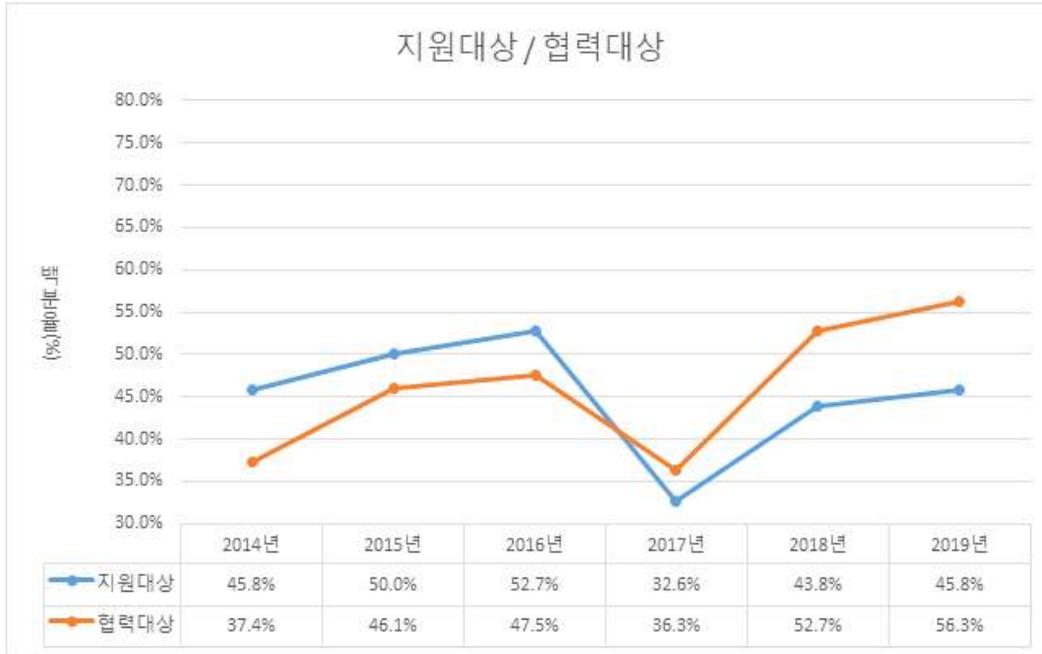
조사개요

통일연구원의 연례 여론조사는 1992년에 시작되었으며,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련된 여론조사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한다.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며, 설명변수로 가치관, 이념, 정치태도, 개인적 심리정향, 주변국 인식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9년 조사는 4월 5일에 시작하여 2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였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였고, 조사원이 직접 대상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대면 면접 방식을 사용하였다. 총 1,003명이 이 조사에 응하였다.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 이다.

북한 이미지의 변화

KINU 통일외식조사에서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4개의 설문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다. 북한을 (1)지원대상, (2)협력대상, (3)경계대상, (4)경쟁대상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물은 후, 그 답을 11점 척도로 측정한다¹⁾. 0점에서 4점까지는 부정, 5점은 반반, 6점에서 10점까지는 긍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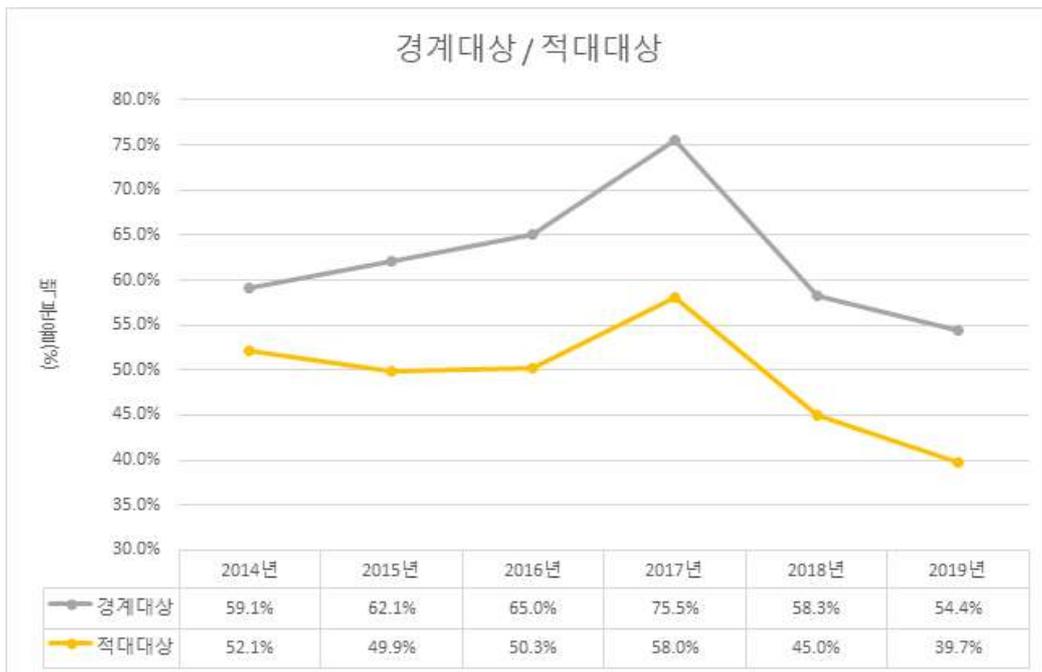


위의 그래프는 북한을 지원 혹은 협력대상이라고 보는 응답자의 비율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즉, 지원대상 및 협력대상 문항에서 6점 이상의 답을 한 사람들을 합하여 비율을 낸 것이다. 2017년 조사는 북한의 핵위협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대응하여 전쟁 위기설까지 나오던 2017년 3월에 진행된 것이다. 위 그래프에서 보면 북한을 지원대상 혹은 협력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2017년에는 각각 32.6%와 36.3%로 가장 낮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2018년에 급반전의 계기를 맞았다. 2018년 조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의 해빙이 급물살을 타던 4월 초에 시작되었으며, 4.27 판문점 회담 전에 끝났다. 이러한 급반전의 분위기가 반영되어, 2018년 조사에서는 지원대상이 43.8%, 협력대상이 52.7%로 늘었다.

그리고 2019년 조사에서는 지원대상이 45.8%, 협력대상이 56.3%로 다시 한 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9년의 협력대상 56.3%는 2014년부터 이 북한 이미지를 조사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전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통일대박론 등에 힘입어 협력대상 이미지가 상승한 적이 있었으나, 이는 2019년의 56.3%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2019년 조사가 하노이에서 열린 제 2차 북미정상회담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헤어진 지 약 한 달 후에 실시된 점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남북이 그리

1) 0=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0=매우 동의한다.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닌 상태에서도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절반 이상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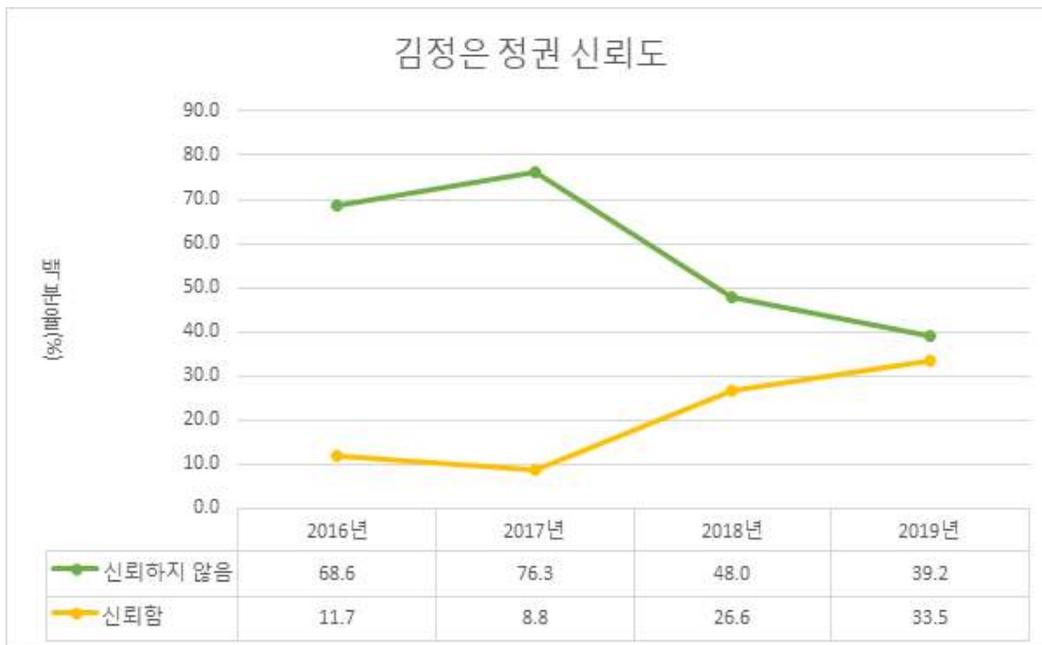
한편,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을 경계대상 혹은 적대대상이라고 답한 국민들의 비율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위와 같다. 2018년과 비교해보면, 경계대상 이미지의 비율은 58.3%에서 54.4%로 감소했다. 적대대상 이미지도 45.0%에서 39.7%로 5.3%p 감소했다. 특히, 적대대상 이미지의 경우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비율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미지의 변화를 정리하면, 북한에 대한 긍정적, 희망적 이미지는 늘어났으며, 부정적, 대립적 이미지는 감소했다. 무엇보다도 협력 이미지가 201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 그리고 동시에 적대 이미지가 조사 이후 최소치를 기록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후에 이 조사가 실시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변화들은 한국 국민들이 북한과의 협력에 대한 기대를 아직 접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북한과의 대화와 타협

“김정은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5점 척도²⁾로 측정할 결과를 아래 그래프로 정리했다. 김정은 정권과 대화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남북관계가 최악이었던 2017년 초에는 8.8%로 극히 낮았지만, 2018년에는 26.6%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2019년 조사에서도 33.5%로 오히려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하노이 정상회담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의 신뢰도가 높아진 것은 매우 놀라운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33.5%라는 수치는 절대적 기준으로 보아 높지 않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는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유사한 질문을 4점 척도³⁾로 조사하고 있는데, 2017년에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28.1%였다가, 2018년 조사에서는 54.7%로 급상승한 바 있다⁴⁾. 이에 비교하면 KINU 통일의식조사의 수치는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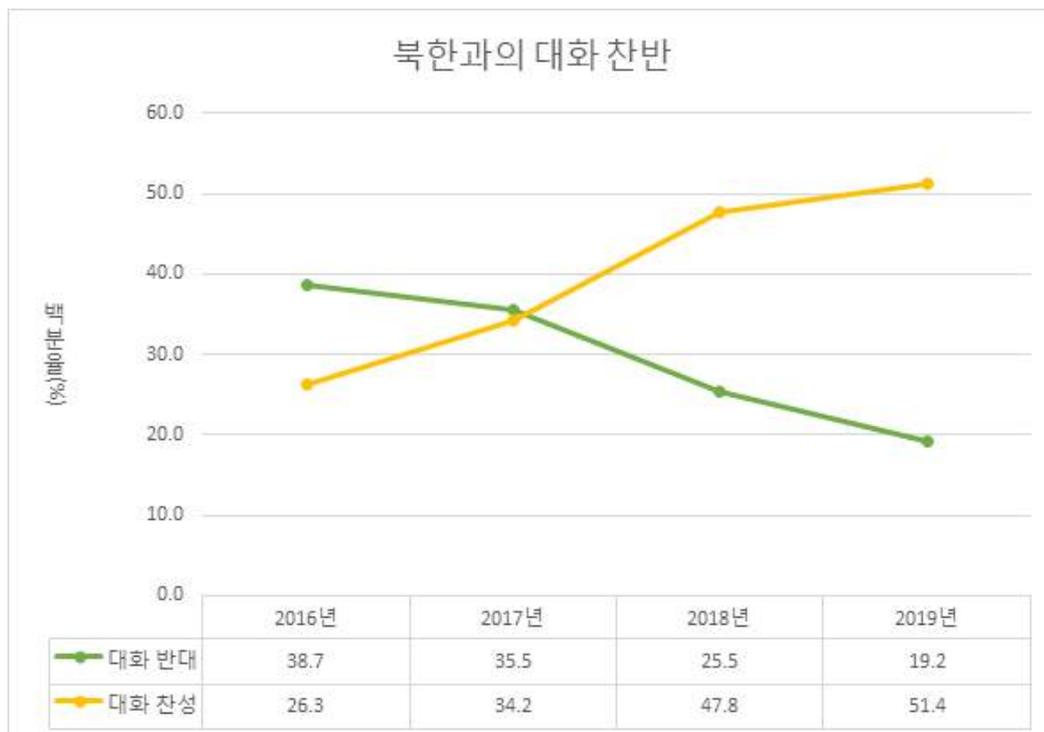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는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가의 문제이다. 서울대학교 통일의식조사에서는 2007년과 2008년에 “북한정권”이라는 표현 대신 “김정일 정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이때 신뢰한다는 비율⁵⁾이 각각 8.8%, 6.7%로 매우 낮게 조사되었는데, 2009년에 김정일 정권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북한정권이라는

2) 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다소 그렇다; 5=매우 그렇다.
 3) 1=매우 신뢰한다; 2=다소 신뢰한다; 3=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4=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 서울대학교의 조사는 매년 7월과 8월 사이에 실시된다.
 5) 매우 신뢰+어느 정도 신뢰

표현으로 대치한 결과 신뢰한다는 비율이 40.9%로 급상승한 경향이 있다. 즉,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이름을 사용한 설문에서 한국 국민들은 불신의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이라는 이름을 직접 사용하는 통일연구원의 설문은 서울대의 설문과 비교했을 때 그 표현의 차이와 측정 방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뢰비율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33.5%는 결코 낮은 신뢰도가 아니다. 남북관계의 전향적 발전이 이러한 신뢰도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2018년에 지속적으로 김정은이 각종 언론 매체에 노출된 것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KINU 통일의식조사에서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신뢰도를 물은 뒤, 이어진 후속 질문에서 이렇게 다시 묻고 있다: “위 질문(김정은 신뢰)과 관계없이 현재 김정은 정권과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 그래프로 정리하였다.



앞선 질문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태도를 물은 것이라면, 후속 질문은 김정은 정권과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는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을 신뢰하지 못해도, 북한과의 대화는 그 자체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두 질문은 구별된다.

조사 결과, 김정은 정권 신뢰도와 마찬가지로 대화와 타협 정책에 대한 찬성 비율은 작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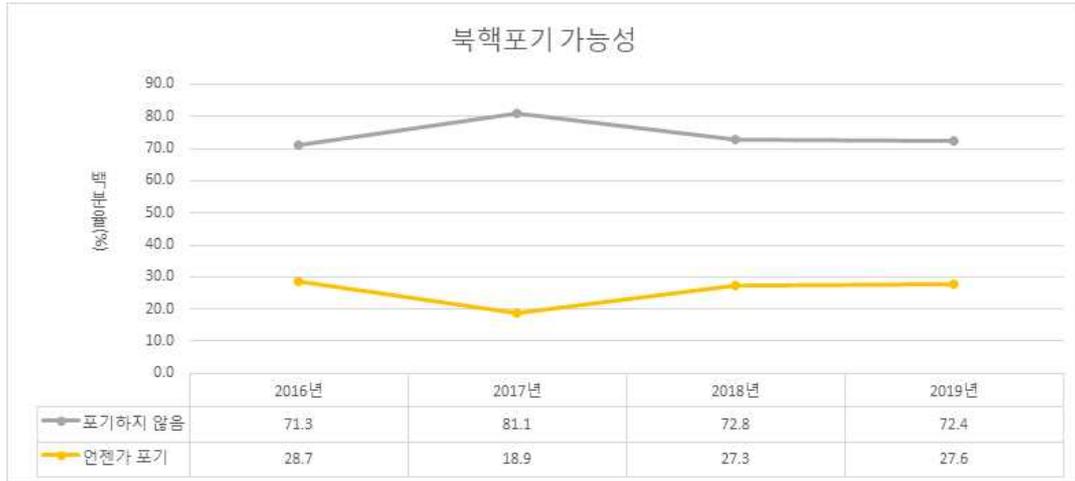
비해 상승했다(47.8% → 51.4%).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2016년부터 대화와 타협에 대한 선호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설명한 다른 통계에서는 2017년 조사에서 북한에 대한 태도가 가장 부정적이었다. 북한 이미지와 김정은 정권 신뢰도는 모두 2016년-2017년 사이 부정적으로 하락했다가 2018년에 재반등하는 패턴을 보였다. 그런데 대화와 타협에 대한 태도는 2016년에 가장 낮았지만, 전쟁위기설마저 나왔던 2017년에 오히려 상승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추측해볼 수 있는 것은, 남북관계 악화 시기에도 남한 국민들이 반드시 북한과의 대화가 단절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남북관계가 협력 단계로 접어들다면 물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그 협력을 평화와 번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혹은 미사일 발사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대화와 타협에 대한 선호가 증가한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 국민들은 남북관계의 문제를 갈등과 압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 2018년에 김정은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마저 반대한 사람들은 48.9%였다. 즉, 이들은 김정은 정권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김정은 정권과 대화할 필요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전체 응답자 1,002명 중 235명이 여기에 해당했다. 그런데, 2019년에는 김정은 정권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 중 대화 반대의 비율이 40.7%로 줄었다. 이는 전체 응답자 1,003명 중 160명이다. 반면 신뢰하지 않지만 대화에는 찬성하는 사람은 31.6%였다. 다시 말해 2019년 조사에서는 김정은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중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대화는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019년의 남북관계가 2018년에 비해 속력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KINU 통일의식조사는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국민들은 북한과의 대립과 반목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슬기로운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 핵포기 가능성과 대북정책 평가

그렇다면 과연 한국 국민들은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 응답의 분포는 아래의 그래프와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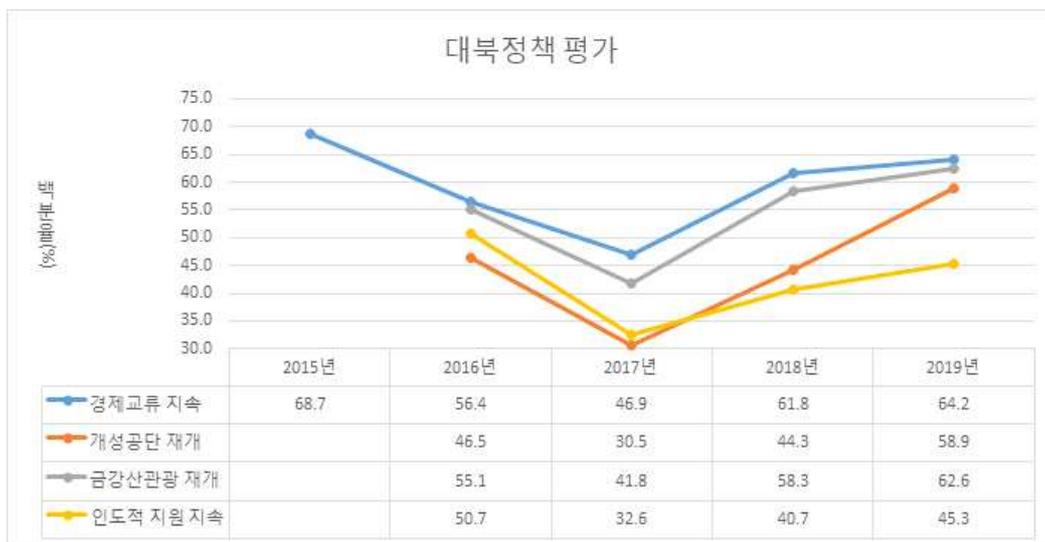
북한의 핵위협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17년에는 핵포기에 대한 기대 또한 가장 낮아서, 18.9%의 응답자만이 언젠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⁶⁾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2018년에는 이 부정적인 분위기가 반전되어 27.3%가 핵포기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2019년 조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오히려 약간 더 많은 27.6%가 핵포기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것을 볼 수 있다.

여전히 27.6%가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다수 72.4%의 응답자들은 북한 핵포기 가능성이 없다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항목의 변화 추세를 볼 때,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도 한국 국민들은 2018년에 시작된 대화국면이 다시 북핵 위기 국면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우호적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아래 그래프에선 (1)경제교류 지속⁷⁾, (2)개성공단 재개⁸⁾, (3)금강산 관광 재개⁹⁾, (4)인도적 지원 지속¹⁰⁾ 등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대북정책에 대한 선호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각 항목은 11점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긍정적 응답(6점 이상)을 한 응답자의 수를 더해 백분율로 표시해서 한 그래프에서 비교해 보았다.

6) 이 그래프에서 “언젠가 포기” 항목은 “조만간에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와 “장기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 항목을 합친 것이다.
 7)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에서도 경제교류·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8) “개성공단은 재개되어야 한다.”
 9)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10)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

우선, 가장 확실히 보이는 특징은 북한과의 협력 및 지원에 대한 확실한 선호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네 가지 정책 분야에서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된 증가세가 확인되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선호는 특히 높아서, 2019년에는 각각 64.2%와 62.6%의 응답자가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2018년에서 19년 사이 가장 큰 변화를 보인 항목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선호였다. 2018년에 개성공단 재개를 찬성한 사람들은 44.4%였는데, 19년에는 14.6%p가 오른 58.9%가 개성공단 재개를 지지하고 있었다. 인도적 지원 지속 또한 절반 가까운 45.3%의 응답자가 찬성했다.

협력에의 기대, 대화에 대한 신념

이상 2019년 KINU 통일의식조사에서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2018년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실현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80%가 넘는 지지와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선호로 이어졌다. 2019년에는 그러나 많은 상황적 변화가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상대적으로 낮아진 상황이며, 특히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로 남북관계의 지속적 협력 가능성에 대해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조사된 결과를 분석해보면 한국 국민들은 남북 사이의 협력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체된 대화 국면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시도해야 한다는

확실한 요구가 확인되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우호적인 여론이 구체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때다. ©KINU 2019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